수능 100일 전 학교장 격려사

안녕하세요?
방학들 잘 보내고 있지요?

폭염 속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여러분들의 모습이 선하군요.

이제 수능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 먼 길, 12년을 쉼 없이 달려온 여러분에게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이 시험과 경쟁, 통제의 굴레가 되어버린 현재,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가가 지친 어깨 한 번 토닥거려주며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분주하고, 저마다 헤쳐가야할 일들이 산적해있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하나의 노력하는 모습과 티 없는 행동에 저는 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수능'은,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대부분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힘든 고비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들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만, 두 주먹 불끈 쥐고 마음을 고쳐 잡으며 노력했던 보람찬 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수능'이라는 고지로 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각자 스스로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여러분은 가장 힘들다는 산의 정상 8부능선까지 와 있습니다.
최고봉을 오르는 알피니스트처럼 지금 여러분들은 더욱 힘들고 지쳐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묵묵히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부모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말은 안하지만 지켜보는 심정이 더 초조하고 착잡함을 여러분들인들 왜 모를까요...
진정 모두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는 여러분의 다함없는 팬들입니다.
그러한 응원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수능 백일 전!
승부수를 띄우기에 아직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했듯이 오늘은 그만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 소중한 오늘이 아직 100개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저력을 스스로 믿어보십시오!

보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반추해볼 때
지금 이토록 거대하게 보이던 수능이라는 장벽은,
분명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삶의 작은 고비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 때 웃기 위해선 지금 있는 힘을 다해야 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요?

이제 100일 후면, 여러분은 수능을 치르고, 더 크고 넓은 세상에 도전하게 됩니다.
결과는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공식이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젠, 나와의 싸움입니다.
미국 소설가 윌리엄 포크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 쓰는 게 더 중요하다."
빅토르 위고 역시,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주요한 싸움이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설 속에서 善(선)한 장발장이 惡(악)한 장발장을 이겼듯이, 여러분도 '부지런한 나'가 '게으른 나'를 이겨내길 바랍니다.
결국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적당한 휴식,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으로 남은 100일을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공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노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부모님과 선생님들 모두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일고 3학년 학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2017. 8. 7 북일고등학교장 김 선 종